

## 非 唯物的 哲學觀(二)

裴相河

### 三. 아릿싸운 것

[文學, 藝術]

아릿싸운 것이란 말은 單純히 文法的으로 解釋할 것 가트면 아릿싸움다는 感興을 우리네 主觀에게 넘키게 할 만한 客觀的 存在를 말함으로되 論理的 過程에서 推論의 形式을 빌어 所謂(Philosophieren) 한 結果에 依해서 볼 때에는 單純히 아릿싸움다는 것보담 더 먼곳을 暗示하는 말이 될 것이다. 卽 다시 말하면 文學이고 藝術이고 그것이 偉대한 文學的 作品이며 偉대한 藝術的 産物이란 名譽를 지게될 最大因素라고 할 만한 것은 이것을 鑑賞하는 主觀으로 하여금 客觀的 作品 그것 가운데 살게 할 만한 能力을 가진다는 것일 것 換言하면 感賞의 主와 作品인 客이 그 作品을 感賞하는 同時에 客 主客을 超越한 同化狀態에 넘키게 할만한 能力 無我境 恍惚境에 到達하게 할만한 能力을 具備한 作品이라야 비로소 偉대한 藝術品이라만 할 것이다. 여기서 우리는 推論의 形式을 빌면 神秘로운 無我境 恍惚境에 넘키게 할만한 根本要素는 眞이라기 보담 善이라기보담 『美』라고 하지 안할 수 업슬 것이니 아릿싸움다는 것 (美)이야말로 偉大 藝術的 作品의 根原 點이라 할 수 잇다. 이와 가티 美는 偉대한 藝術品의 根本要素인 同時에 單純한 常識的 意義의 『美』를 超越한 큰 權威를 갖고 잇다. 잘하서 아모리 醜惡한 材料에서 솜여낸 作品일지라도 그것이 偉대한 일홈에 合當할려면은 鑑賞主로하여금 醜惡한 事實 그 가운데 融合시켜 바람으로써 醜惡한 事實을 醜惡타고 認識 못할만치 鑑賞主의 全心的 內容을 美化해버려야 할 것이다. 다시 말하면 醜惡한 材料가 美的 活動을 鑑賞主에게 넘키길만치 高揚되어야 할 것이란 말이다.

以上으로써 나는 아모리 醜惡한 客觀的 材料 (物이든, 心이든)일지라도 偉대한 藝術家의 偉대한 加工을 빌면 가장 아릿싸운 作品이란 感興을 鑑賞主

觀에게 넘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였지만은 이곳서 以上の 論點을 뒤박꾸어보면 아모리 醜惡한 取題에서 생겨난 作品일지라도 그 作品이 偉大함으로써 우리네 鑑賞主의 興味를 흠뻑 스을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그 作品의 醜惡한 事實을 如實히 醜惡타고 憎惡하기보담 돌리어 거기에 對한 同情(醜惡한 事實의 主人公과 가튼 마음이 된다)이 생기며 同情이 생기는 同時에 될 수만 잇스면 그 醜惡을 崇美化 해보려는 傾向이 몹시 일어날 것이다. 이로 볼진대 主觀 가운데에는 늘 美化하려는 機能이 뿌리깊피 潛在해 잇슴을 알 것이니 여긔서 한 사람의 마음(心)을 分析해 봐서 그 마음속엔 永久히 잇는대로 (as such)의 物心を 超越한 美 그것을 渴望하는 要求가 잇다고 斷定할 수 잇을 것이다. 勿論 環境과 性格 등이 個人的 差異를 생기게 안하고는 못하겠지만은 一段的 普遍的으로 此를 概觀하면 어느 사람 마음 가운데든지 意識的으로 쏘는 無意識的으로 長期的 쏘는 脫間的으로 美에 對한 要求가 잇을 것이니 이 美야말로 物心を 超越한 (Beauty itself) 다시 말하면 無我境例를 들면 Attika)와 갓튼 恍惚境을 말함이다. 台初에 이러한 傳說이 잇다.

破船을 當한 船客들 中에 僅僅히 木片 한 쪽에 몸을 싣혀 無人島에 漂着된 男妹孤兒가 잇섯다. 勿論 철몰르는 어린 아희들이니깐 처음에는 極變된 周圍에 對한 恐怖로 울기만 하였섯다. 그러나 元來 女性은 小才에 눈 썸이 쌀으니 누이동생의 盡力으로 말미암아 播種도 하고 採草摘果도 하여 飢渴은 免할 수가 잇섯다. 그리하여 몇 겨울이 지나가고 몇 봄을 다시 마지하는 동안에 그들도 (靑春)이란 가장 아릿답고 가장 무서운 自然의 선물을 바덧섯다. 兄은 누이를 사랑하고 누이도 亦是 兄을 欲哀하였스나 그것은 單只 肉親의 사랑에 지나지 못하였든 것이 靑春의 한 술잔에 그들의 사랑은 아지못하는 사이에 異性의 사랑으로 變하고 말엇다. 달콤하여야 할 異性愛이엇섯지만은 여긔에 自覺이 잇는 그네들 兄妹에게는 限量업는 괴롬이엇섯다. 그럼으로 兄은 누이를 遠하고 누이도 兄을 두려워하기 始作하였스나 그네들 힘보담 몇 배나 더 힘센 自然의 힘으로 말미암아 어제까지의 男妹가 오늘에는 夫婦가 되고 말엇다고 한다.

우리가 이 傳說을 들을 썸에 그네들 男妹의 行動을 비웃거나 쏘는 辱하거나하는 代身에 肉과 肉, 物과 物을 度外視함으로써 그네들의 性愛를 얼마든지 肯定하고 십지 안흔가?